

考古美術 卅一스

◎ 昇安寺址三層石塔에서 遺物發見

國寶四四九號 昇安寺址三層石塔 移建工事中 三層塔身에서 다음 遺物이 發見되
어 慶州博物館에서 保管하게 되었다 한다

- 1, 蓋付盒 一點 黃銅製 高一〇·五cm 徑八·三cm 李朝 高麗
- 2, 유리珠裝身具 一連 各種 高麗
- 3, 指環 七箇 金製, 銀製 徑二cm 厚〇·三cm 李朝
- 4, 유리製舍利瓶 一點 蓋付 高四·七cm 高麗
- 5, 織物 若干 絹, 紗衫片若干 李朝
- 6, 韓紙銘文 一枚 弘治七年銘文 李朝

◎ 石窟庵工事現場의 視察

三月三十一日 最高會議 議長 朴正熙將軍은 丁商工部長官 朴慶北知事 經濟人士
等과 約一時間에 걸쳐 現場을 視察하였다. 또 翌四月一日에서 最高會議 文社委
鄭世雄 最高委員과 黃圭萬中領이 또한 現場에서 工事進行狀況을 調査하였다. 이
때에 는 同人黃壽永氏가 同行하였는데 一行은 歸路에 慶州 瞻星臺 雁鴨池와 市廳
앞의 露出古墳의 現場도 調査하였다.

◎ 歷史學會月例研究發表會

三月二十四日 午後二時부터 梨花大學校에서 開催되었는 바 그 內容은 如左
千寬宇 朝鮮初期의 五衛軍考
孫景禧 韓國을 中心한 十二生育에 對한 小考

草稿本 海東金石存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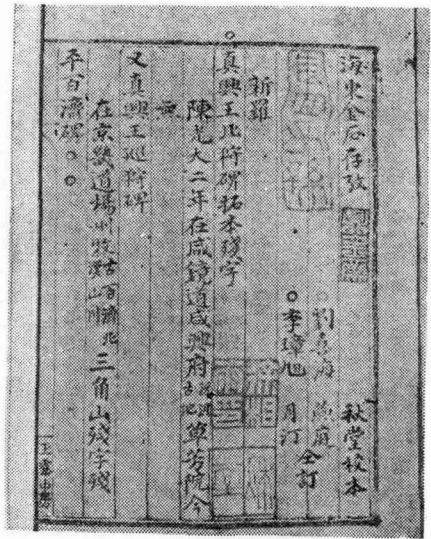
金 庠 基

燕庭 劉喜海의 名義로 刊行된 海東金石存考는(以下 『存考』라 略稱함)
그의 刊行年代가 同人의 名著인 海東金石苑보다(以下 『金石苑』이라 略
稱함) 一年이 뒤졌다. 『金石苑』의 刊行은 道光十一年이요 『存考』는 同
十二年(인) 그러나 『存考』는 實로 『金石苑』에 앞서 지어진 것이니(이하)
『存考』는 이른보기에 『金石苑』目錄의 解題와도 비슷하나 實은 이것을
基調로하여 具體的인 內容을 실은 것이 곧 『金石苑』이라 할 것이니 이는
『存考』의 撰著經路로 보아 그러하다.

이제 筆者所藏의 草稿本 『存考』를 通하여 그의 撰著經路를 상고하여
보면 이 拙藏 『存考』는 最近世 우리나라 金石嗜好家인 秋堂 徐相雨先生
의 校本으로서 秋堂題簽에 板心(印刷紙) 下部에는 『玉露山房』四字가 박
혀있으며 首張의 題目部에 위와같이 기록하였고 그 周圍에 『鼎金齋』
『長宜子孫』 『徐相雨印』 『秋
堂』等 印이 찍혔으며 그
欄上에는 『尹濂』 『淵齋』 尹
宗儀 先生의 子』이라는 印
이 찍혀져 있다. 그리고

此目 想尙多未備 望
山泉仁兄 爲補輯之 是幸 再啟
筭 已有者 以疎○別之 其未得
專懇 留意購得 寄我爲望
燕庭 拜記

本書의 末尾에는 山泉 金命喜先生에게 寄托하는 燕庭의 글이 실려있고



끝 줄에 『月汀寫寄』

濃氏에게 돌아갔던 것도 推察할 수가 있는 것이다. 數年前에 本書는 偶然하게도 淵齋의 여러 原稿本 遺著와 아울러 筆者의 書架로 들어온 것이다. 다음 內容上으로 拙藏『存考』와 印本『存考』를 對校하여 보면 印本『存考』에는 燕庭의 單獨著作과 같이 되었으나 拙藏『存考』에는 前 學한 바와 같이 燕庭·月汀의 共訂으로 되어있고 또 末尾에도 『燕庭拜記』 『月汀寫寄』라 한 것으로 보면 本書撰訂에 있어 月汀의 힘이 또 한 많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拙藏『存考』에 실려있는 各 金石의 項目아래에는 朱의 ○와 黑의 ○가 附記되어 있는데 朱○는 燕庭 所收의 標識이며 黑○는 月汀 所藏의 標識인 바 種目에 따라서는 朱○만 적히고 或은 黑○만 적힌 것도 있으며 朱○黑○가 并記된 것도 있다. 그리고 또 朱書로 有無의 別을 적어 놓은 것도 있으니 예를 들면 『普願寺法印大師碑』題下에 朱書로 『燕庭書 此種東卿(○葉志詵)處有 而敝筭 尙無』라 하였고 『法泉寺玄妙塔碑』題下에 『燕庭書 此種月汀處有 而敝筭 無』라 하였다. 일로 보면 『存考』乃至 『金石苑』의 資料에는 燕庭의 所收 品以外에 月汀 또는 東卿等과 같이 東儒와 交誼를 갖은 人士들의 所獲

品도 綜合利用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拙藏『存考』는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未定 草稿本으로서 山泉 또는 秋史(山泉의 伯氏)에게 補訂을 請키 爲하여 보내왔던 것으로 推斷하는 바이니 神行禪師碑·寶林寺寶照禪師碑·雙溪寺眞鑑國師碑·聖住寺朗慧和尚葆光塔碑·朗空大師白月樓雲碑 等의 條下에는 모두 『燕庭 有碑額否』라 朱書하여 燕庭은 各碑의 篆額의 有無를 一一히 물었으며 이에 對하여 秋史의 訂正이 各 該當處에 頭註로 되어 있기도 하니 『雙溪寺眞鑑國師碑』條에 『晉州(本文에 雙溪寺所在地를 晉州라 하였음) 當是河東之誤阮堂』이라는 朱書頭註가 보이며 『玉龍寺道詵國師碑』條의 頭註로 『原碑無今存是近刻阮堂』이라 朱書하였다. 그런데 印本『存考』에는 그 該當各碑의 說明에 『篆額』이 明記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이는 分明히 草稿本『存考』에 對한 山泉의 補訂 回示에 依據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拙藏『存考』에 印本『存稿』에 收錄되어 있는 金石의 數文을 살펴 보면 拙藏『存考』에는 新羅의 것이 二八種 高麗分이 七三種인데 印本에는 新羅分이 三〇種이요 高麗의 것이 八〇種으로서 印本の 것은 뒤에 다시 資料를 얻어 添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元來『存考』와 『金石苑』의 資料는 雲石趙寅永·趙秉龜(雲石의 姪·秋史金正喜·山泉金命喜等 諸先生)로부터 提供된 것이며 그 가운데에도 特히 山泉으로부터 많이 供給을 받았음은 劉燕庭의 海東金石苑題辭에도 明白히 쓰여 있거니와(註) 印本『存考』도 山泉等 東儒의 補訂을 거쳐 비로소 定本이 되었음은 前學한 여러 條件으로써 推斷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存考』가 『金石苑』에 先行하여 撰著된 것도 또한 推斷할 수가 있는 것이니 拙藏『存稿』의 『奉德寺鍾銘陽文』條下에 『燕庭書 雲石(○趙寅永)所贈此種 無文後陽文畫象 如不難得 望寄一全本』이라 朱書하였으며 『三日浦丹書岩題名』條下에 『燕庭書 此種 前信曾云 已囑人往 拓未知 已入手否』라 朱書하였다. 그런데 『金石苑』에는 奉德寺鍾의 陽文 畫像과 三日浦丹書岩題名의 字樣이 실려 있는 위에 『金石苑』에 실린 種目이 存考의 것보다 훨씬 多數인 것이다. 일로 보면 『存考』는 『金石苑』에 실려있는 이러한 完拓과 其他 다른 資料가 아직 그들의 손에 들어가

前에 지어진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要컨대 拙藏『存考』를 통하여 印本『存考』가 刊行되기까지의 經緯 그리고 『存考』와 『金石苑』과의 關係等을 대개 추려 볼 수가 있는 同時에 金石 文庫中心으로 한 當年の 韓中文化交流의 一面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다.

〔註〕劉喜海의 海東金石苑 題辭에 『爰有雲石趙君趙雲石 名寅永字義卿朝 鮮人 嘉慶丙子入都 知餘有 金石癖 於書林中 晤之 出行篋所携東碑數 十種 悉以見餉 嗣後 每遇鴻便 必有金石之寄 竹林繼美雲石小阮 名 秉龜 字景賢 亦有金石之好 道光庚寅春曰 充使來都 金石爲寶 修舊好 焉即以 山泉金子 金山泉 名命喜 道光癸未來都與 餘同好 多金石之 贈 棠棣齊 名 山川長兄秋史 名正喜者 曾於庚午來都 謁見翁覃溪阮雲 臺諸先生 其經術文名 爲朝鮮一時之冠 曾手拓古碑 寄餘 學富縵緗 誼 敦縵紆 雅慕中華之教 欲觀上國之光……石墨凝香 携來百三十卷 相逢 傾蓋 文字結於奇緣 持贈探囊 金石投夫雅契……惠我以東國琳瑯 英郡 殘卑 別遍鑄苔碧辭 鷄林片石 拓以繭紙 云云』이라 하였음 그리고 海 東金石苑의 刊行에 關하여 本考古美術 第二卷 第十號 所載 拙稿 『古揚麟角寺碑』註二에 海東金石苑 後半部四卷이 遺失된 것을 指摘 한 바 있으나 다시 상고해 본 바에 依하면 遺失된 下半部四卷은 近來 에 發見되어 羅振玉氏가 이것에 다시 새로이 蒐輯된 資料를 添加하 여 西紀一九二二年(中華民國十一年)에 海東金石苑八卷 附錄二卷 補遺六卷을 刊行한 일이 있으므로 이에 前註를 補訂함

燕岐蓮花寺의 石像

黃 壽 永

數年來 忠南 燕岐郡을 中心으로 삼은 調査에서 收拾된 碑像 ①은 모 두 西紀七世紀 後半에 이르러 百濟故土에서 造成된 作品으로서 그 中에 는 在銘品 三點이 있어 더욱 注目을 받았다. 이 곳에 紹介하는 兩新例도

第三卷 第五號 通卷二十二號

한 同郡(西面月下里一區一〇四七)에서 着眼된 同系의 遺品으로서 特히 그 中의 하나는 따로 蓮花臺石과 家屋形 天蓋石이 推定되는 在銘品임에 서 더욱 貴重하다. 이들은 모두 距今約五十年前에 現所藏處인 蓮花寺 의 創建主人 故洪文燮氏夫妻에 의하여 同郡西面『권터굴』밭둑에서 發掘 搬移되었다고 詳한 詳細한 經緯는 알 수가 없었다.

二

(其一) 舟形을 이루는 높이 五一cm(上端小缺)의 蠟石質의 石像으로서 底面은 菱形이며 兩側面(厚約一〇cm)과 背面에는 彫像이 있다. 下面은 單瓣仰蓮座를 이루었고 前面에는 各各히 群像七尊이 配置되었다. 그 中 通肩의 本尊은 方座, 위에 結跏趺座하였는데 手印으로 보아서 阿彌陀佛 로 推定되며 相好는 全破되었으나 肉髻와 螺髮은 남아 있다. 그 左右에 는 菩薩 羅漢仁王이 各一像씩 蓮花座上에서 直立의 姿勢를 하였다. 本 尊은 舟形의 身光과 大圓의 頭光을 갖고 있는데 蓮花文 四葉紋帶寶珠忍 多文火焰文을 彫飾하였고 그 外緣에는 化佛(推定七軀)과 火焰文이 있다. 其他的 彫刻으로서 는 諸尊蓮座下에 蓮葉과 蹲踞하는 獅子가 있고 本尊 裳懸座下에 博山爐形器가 있다. 側面은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졌는데 上 記獅子의 身部와 三分岐의 꼬리가 새겨진 위에 結跏趺 通肩 禪定印의 如 來座像 一軀가 各各 寶珠形光背를 갖고 있다. 背面의 中央은 隆起되었 고 그 下半部에는 蓮莖사이에 如來獨尊의 座像을 浮刻하였는데 큰 頭身 光을 갖고 있으며 右手는 降魔印을 보이고 있는 것이 注目되었다. 彫飾 의 手法는 精巧刻明하지는 못하며 磨損이 尤甚한데 年代는 碑岩寺石像 보다. 多少降下하는 것으로 推定되며 形態나 細部手法에서 公州 正安面 發見의 三尊像 ②과 곧 比較된 것이다.

三

(其二) 戊寅銘 四面石像(附) 蓮座石 및 屋蓋石 各一) 長方形 佛石 上下에는 突起가 만들어지고 側面은 上促下寬을 이루고 있다. 前面上部에는 方形蓮座위에 正面한 如來座像을 中心으로 그 左右 에 菩薩立像과 그사이에 羅漢立像 各一의 五尊을 配置하였다. 下部에는 蓮池를 波紋으로 表現하고 中央에 蓮花文을 새겼는데 그 左右는 磨滅되